

[여행]

경남 함양 상림(上林)

■ 찾아가는 길

88고속도로를 이용 함양 I.C로 진입-관마로 우회전... 10분 진행하면 상림. 광주에서 승용차로 1시간 40분.



■ 맛집

상림공원 주차장 건너편에 위치한 늘봄가든(055-963-7722)은 오곡정식이 일품이다. 조밥, 수수밥, 보리밥, 현미밥, 쌀밥 등 5가지 밥에 지리산에서 나오는 10여가지의 나물과 돼지 머릿고기, 된장국, 꼬리곰탕 등 각종 음식이 한 상을 가득 채운다.

■ 가볼만한 곳

상림에서 멀지 않은 수동 개펄마을을 정여창 고택과 하동 정씨 생가 등도 둘러 세월의 손때가 묻은 고택을 둘러보는 것도 알찬 여행길이다. 정여창 고택은 TV 드라마 '토지'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데 3천여평의 대지에 12동의 건물이 배치된 남도 지방 대표적 양반 고택이다.



또 함양읍에서 마천면의 벽송사와 서암(서암정사)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들어서면 변경 석쇠와 웅녀가 지리산에 들어갈 때 울었다는 전설의 고깃길인 오도재(시진)와 지안재를 만날 수 있다. 고개 아래 마천면 의탄리로 내려가면 철선계곡 입구의 원편 산중턱에 서암이 자리잡고 있다.

낙엽길로 유명한 경남 함양의 상림 숲길. 나들이객들이 산책을 거닐며 저물어 가는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고 있다.



바스락~ 바스락~ 들리는가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낙엽이 채 떨어지기 전에 성큼 초겨울로 들어선 듯 하다. 저물어 가는 가을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다면 경남 함양의 상림(上林)으로 발길을 돌려볼 것을 추천한다. 상림은 백운산 자락에서 발원한 위천을 따라 폭 82~200m, 1.6km로 조성된 인공숲. 아름다운 낙엽수와 활엽수만 120여종 2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요즘엔 낙엽비가 한창이다.



김종직, 박지원 등 함양을 빛낸 인물들의 흉상이 있는 역사인물공원.

최치원이 조성한 '천년의 숲'... 낙엽비 한창 김종직·박지원... 함양 빛낸 역사인물공원도

년째 조성된 인공림으로 기록돼 있다. 이 인공림을 만든 이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 당시 함양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은 위천수의 범람으로 홍수피해가 잦아, 독을 쌓아 물길을 돌리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바로 상림이 포함된 '대관림'이다. 하지만 어느해 인가 대홍수가 나 숲의 중간이 홍수로 휩쓸려 가면서 대관림은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었고, 그 후에 하림엔 마을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상림만 온전하게 남아있다. 하림이 있던 곳에 몇그루의 나무만 남아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상림에는 최치원과 얽힌 전설도 많다. 지리산과 백운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금으로 만든 호미로 하루만에 3km길이의 대관림을 일궈냈다는 전설부터, 어느날 그의 어머니가 상림을 거닐다가 뱀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을 알고는 "모든 해충은 다시는 이 숲에 들지 마라"고 꾸짖어 벌레 한마리 얼씬 거리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힘든 일화도 남아있다. 상림은 지금도 유독 뱀이나 벌레가 없는 곳으로 유명한데, 함양 사람들은 최치원 선생의 효행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최치원 선생의 일화에 팔린 뉘를 주스려 고개를 둘러보니 약수터가 눈에 들어온다. 변변한 자판기 하나 없는 이곳에서 목마를 날들이객들에게 반가운 장소다. 약수물에 목을 축이고 밧줄을 옮기니 숲길 왼쪽 편에 역사인물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함양을 빛낸 김종직, 유호, 정여창, 박지원 등의 흉상과 함께 자세한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산비의 고상' 인 함양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함양=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properties in Gwangju, including listing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인애공인중개사', '일기공인중개사', '민음공인중개사', '21세기건설링주식회사', and '현대공인중개사'.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roperties for sale or rent.